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4.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매서운 겨울 추위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입춘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의 품에 안겨 겨울을 나는 생명의 씨앗 들처럼, 우리 삶이 제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 속에 있는 희망은 스러질 수 없습니다. 인정이 매마른 땅을 걸어가느라 때로는 비틀거렸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 듯이 사람들을 곁으로 부르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얼어서 무거워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삶의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는 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사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4:6	인도자
♠ 교 독 문	19. 시편 84 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최성애 집사 II. 김재흥 목사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다함께
성경봉독	I. 창8:13-22	다함께
	II. 막7:24-30	인도자
찬 양	성가대	
말 씬	I. 계절의 순환은 은총	김기석 목사
	II. 경계 가로지르기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20. 그 누가 나의 괴롬 알며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듯 보여도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름길보다는 진리
의 길을 단호히 선택하는 참 멋진 이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참 좋으신 주님, 지난날 우리는 마음내키는 대로 살았습니
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
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보이지 않는 벽들을 사심 없
는 사랑으로 허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
구로 삼아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1남선교회 주최예배	2월 기도의 밤
말씀: 민영진 목사(성서공회 총무)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박옥식 전도사	구명자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정길	백승민	유영남	최영혜	권미정
	헌금위원	김철수	박창운	김용진	임창선	곽해자	김성자

하늘은 왜 저리 높은 것인가

저 하늘은 왜 있는 것인가. 왜 저리도 푸르며 높은 것인가. 구름이 마구 덮어 씌어도,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그 너머 늠름하고 웅장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며, 이 땅에 더러운 짓거리들이 넘쳐나도 저렇듯 말없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음은 또 어떤 비밀 때문인가.

저는 가끔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호수 길 맞은 쪽에 늘어진 답답한 건물들 그 너머에서 하늘은 언제나 저토록 넓고 높습니다.

오랜 동안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이 이성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겨댔습니다. 지난날의 것은 그 무엇이나 이성에 어긋난다며 모조리 밀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정복하겠다 하고 모든 고통과 악도 몰아내겠다 큰소리쳤습니다. 진리의 독점자로 군림하였습니다. 독선의 칼을 마구 휘둘러댔습니다. 그 발아래 짓밟히지 않을 장사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당함이 서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간단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오만이었습니다. 기껏 이성은 부분의 성공을 거두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긴 했다지만 새로운 고통도 불러왔습니다. 핵이 드리우고 있는 무서운 그림자를 보십시오. 인간이 신주처럼 모시던 이성이 오늘의 과학을 잉태하면서, 마침내 스스로 절대적 자리에 올라선 다음 아무렇게나 뺏어낸 오만의 결과물입니다. 옛 우상을 허물어뜨린 그 자리에 과학이라는 새로운 우상이 들어선 것입니다. 과학뿐이 아닙니다. 지난 얼마 동안 우리는 물질의 풍요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개발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 너머 다른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삶의 마지막 목표이자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물질 획득의 순박한 시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이 한 점에 모아졌습니다.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물질의 획득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뿌듯함이요 떠벌리는 자랑입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물질을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가치로, 가장 높은 목표로 올려

놓고 그것을 신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물질주의자가 되고 유물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물질 획득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행복의 조건이요 행복의 정점이라는 굳은 믿음의 신봉자로 살고 있습니다. 철저한 ‘유물주의자’며 ‘유물주의 광신도’입니다.

유물주의란 철책 너머 어느 무서운 땅에 진치고 있는 낮은 체제가 아닙니다. 저 만큼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의식 그 속에 진치고 있습니다.

삶과 세계를 경제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물질의 잣대로 재려는 유물주의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이 땅을 점거한 것입니다. 유물주의 체제가 세워진 셈입니다.

이제 우리의 굳어진 의식 세계를 넘어설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빠져든 우매한 믿음의 세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태 당연하다고 믿어온 바로 그것들을 넘어서야 하는 믿음, 오늘날 절대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식세계 바로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야 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에 대한 부정을 뜻하며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기 성찰이요 확인을 뜻합니다.

믿음의 세계란 우리가 ‘믿는 바’를 넘어서고 또 넘어서게 하는 그 무엇을 뜻합니다. ‘믿음’은 그 어디고 머물러 고착되어 있지 않고 끝없이 넘어서고 넘어서는 초월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것을 넘어 ‘끝없이 열려있는’ 그 무엇에 맞닿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파괴해야 할 이상입니다.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늘 쳐다보기를 좋아하고, 하늘은 왜 높이 있는 것인가 하며 하늘과 대화하고자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듯 날뛰어도 하늘만큼 높이 뛰지 못하며, 아무리 높이 집을 지어 올린다 한들 하늘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하늘은 인간의 범위 그 너머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열린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글은 월간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 1월호에서 따왔습니다. 글쓴이 박영신 님은 “나는 녹색연합 사람입니다”라고 늘 첫인사를 하시는 녹색연합 상임대표입니다. 뒤늦게 신학을 하여 목사님이기도 한 님은 평생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음/으/조/읽/는/글**

溫柔에 대하여

온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그 사람 빈집 안의 작은 불꽃이
오늘은 더욱 맑고 섬세하구나.
겨울 아침에 무거운 사람들 모여서
온유의 강을 조용히 건너가느니
주위의 추운 나무들 눈보라 털어내고
눈부신 강의 숨결을 받아 마신다.

말과 숨결로 나를 방문한 온유여,
언 손을 여기 얹고 이마 내리노니
시끄러운 사람들의 도시를 지나
님이여 누군가 어깨 떨며 온다.
그 겸손하고 작은 물 내게 물어와
떠돌던 날의 더운 몸을 씻어준다.

하루를 마감하는 내 저녁 속의 노을,
가없는 온유의 강이 큰 힘이라니!
나도 저런 색으로 강해지고 싶었다.
불타는 뜬구름도 하나 외롭지 않구나.

(마중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이용한 오성희 윤석철 장혜숙 김인걸 문영혜 김중수 이순정 조관행
 홍선희 안종일 정현주 김준호 곽혜자 박규석 박경선 김용길 최영혜
 박영숙 이은옥 한인철 조운숙 김희진 박홍재 임승동 백혜숙 고광승
 이춘희 최인환 박홍엽 임고은 고사일 최영선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이동천 황경순 왕수명 전영규 김경수 박경원 서재홍
 박현우 정진경 박범희 곽권희 이경람

감사헌금:

김재홍 김정섭 김창원 정지은 구명자 박재실 이명옥 김대근 한인철
 조운숙 이명희 김용길 최영혜 김흥기 이정은 정경례 김중구 박효선

생일감사헌금: 정두리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침	교 회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린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2. **오후집회** : 제1남선교회 주최로 드립니다. 민영진 목사님(대한성서공회 총무)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3. **기도의 밤** : 4일(수)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새 학기를 앞둔 교사들과 성가대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수련회** : 청년회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금)부터 1박2일 동안 용인에서 열립니다.
5. **연합속회** : 2월 6일(금)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 인도 - 예루살렘 속 식사준비 - 고린도 속
6. **졸업감사예배** : 다음 주일(8) 11시 예배는 각급학교를 졸업하는 이들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7. **봉사활동** : 종묘 앞 급식봉사(4일 오전 11시 15분)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6일 오후 12시 30분)
8.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2월 3일 10시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9. **신앙실천** : 2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바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헌화 - 조관행/홍선희(해린이 첫 돌 기념)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